

더 넓어진 공간·뛰어난 승차감...패밀리 SUV의 정석 '뉴 QX60'

인피니티 '뉴 QX60' 9월 출시

최고출력 265마력...퍼포먼스 강력 지능형 4WD 탑재해 빗길서도 쉿쉿 넘나들 3열 공간...대가족 탑승 충분 6290만원...독보적인 가격 경쟁력



7인승 럭셔리 크로스오버 모델인 '뉴 QX60'은 기존 모델이 지녔던 인피니티 SUV만의 DNA를 디자인과 감성, 편의성 중심으로 더욱 업그레이드해 패밀리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특히 수입 SUV 시장은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평균 25% 이상 성장했다. 올해 역시 1~7월 동안 4만 1021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성장했다.

여전히 블루오션인 SUV 시장 선점을 위해 수입 자동차 업체들은 앞 다퉈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춘 신모형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더욱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디젤차 배기가스 논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속성과 승차감을 앞세운 가솔린 SUV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SU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카로 새롭게 태어난 '닛산' '뉴 무라노', BMW '뉴 X5 x드라이브 40e', 캐딜락 'XT5'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모델은 인피니티 7인승 럭셔리 크로스오버 모델인 뉴 QX60(New QX60)이다.

●QX60, 가격 낮추며 폭발적인 성장 9월 신형 모델 출시

QX60은 인피니티 SUV 라인업을 이끄는 대표 모델이다. 지난해 3월 SUV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가격을 최대 710만원 재조정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 가격 조정 직후 판매량은 4배가량 급증했으며(1~3월 판매량 대비 4~6월 판매량), SUV 성장세를 타고 올 상반기 판매

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0%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인피니티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Q50(세단)과 함께 인피니티코리아 성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했다.

9월 출시될 뉴 QX60은 기존 모델이 지녔던 인피니티 SUV만의 DNA를 디자인, 감성, 편의성 중심으로 더욱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디젤 SUV와 차별화되는 가솔린 특유의 정속성과 안락함을 바탕으로 패밀리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다.

●디자인 개선으로 더욱 스포티하고 강렬한 존재감 발휘

인피니티의 최신 패밀리룩을 적용한 뉴 QX60은 더욱 스포티하고 공격적으로 변화했다. 외관은 메쉬 타입의 더블아치 그릴, 한층 날렵해진 헤드램프 및 범퍼 등을 통해 근육질 차체의 존재감이 더욱

강렬해졌다. 또한 크롬 장식 LED 안개등, 사크핀 타입 안테나를 더해 역동성을 높였다. 독특한 조승달 모양 D필러 역시 인피니티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한다. 인테리오는 기존과 색다르면서도 더욱 고급스럽게 진화했다. 도어트림, 센터페시아 우드트림의 패턴을 변경하고 가죽과 대비되는 색상의 스티칭 및 퀵팅 시트를 적용해 품격 있는 분위기를 살렸다.

정속성과 승차감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뉴 QX60의 측면 유리에는 이중접합 어쿠스틱 글라스를 적용해 풍절음 유입을 최소화하고 주행 중 노면에서 올라온 타이어 소음을 줄여 보다 정숙한 실내를 구현했다. 아울러 앞뒤 서스펜션 속업소버 업그레이드를 통해 차체 움직임 및 진동을 최소화시켜 승차감을 높였다.

●이지 액세스 2·3열 공간 활용성 최강

뉴 QX60의 진정한 매력은 2·3열 탑승시 더욱 완벽히 경험할 수 있다. 3열은 아이는 물론 어른들이 탑승하기에도 넉넉해 대가족이 이용하기에도 안심맞춤이다. 2열 시트는 전·후방으로 최대 140mm까지 슬라이딩할 수 있으며, 레버 하나만 내리면 2열 시트를 손쉽게 접을 수 있는 이지 액세스 시트(Easy Access Seat)가 적용되어 3열 공간 승·하차시 매우 편리하다. 2열 뿐 아니라 3열까지 등받이 조절이 가능해 장거리 여행에도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편의사양도 한층 강화됐다. 뉴 QX60은 핸드 프리 파워 리어 게이트(Hands-Free Power Rear Gate) 기능을 적용했다. 뒤 범퍼 아래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센서 하단으로 발을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트렁크 문을 열 수 있다.

인피니티, 뉴QX60 3.5 & 경쟁모델 제원표

	인피니티 뉴QX60 3.5	Audi Q7 35 TDI Premium	Volvo XC90 D5 Momentum
전장(mm)	4,990	5,052	4,950
전폭(mm)	1,960	1,968	2,010
전고(mm)	1,745	1,741	1,775
축거(mm)	2,900	2,994	2,984
배기량(cc)	3,498	2,967	1,969
출력(ps)	265	218	235
토크(kg.m)	34.3	51	48.9
어라운드 뷰 모니터	0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3열시트 각도조절	0	X	X
이지 액세스 시트	0	X	0
핸즈 프리 리어 게이트(오토 트렁크)	0	0	0
2WD 모드	0	X	X
오디오 시스템	Bose 15 Speaker	Bose 19 Speaker	10 Speaker
연료	가솔린	디젤	디젤
복합연비	8.9	11.9	11.9
가격(만원)	6290	9230	8030

사진제공 | 인피니티 코리아

●첨단 안전 및 편의 기술 대거 탑재

뉴 QX60에는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가장 주목할 기술은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이다. 경쟁 모델들이 후방 카메라만을 탑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뉴 QX60은 차량 주변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 듯한 360°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주차를 지원한다. 여기에 전·후방의 움직임은 물체를 감지하면 시정각으로 경고를 제공하는 무빙 오브젝트 디텍션(Moving Object Detection) 기능을 더해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최고출력 265마력·최대토크 34.3kg·m

인피니티 특유의 퍼포먼스 역시 더욱 강력하게 즐길 수 있다. 뉴 QX60은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내구성을 인정받은 3.5

리터 VQ35DE엔진과 인피니티 최초로 무단 변속기(CVT)를 탑재했다. 최고출력 265마력, 최대토크 34.3kg.m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또한 후륜을 기본으로 하는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Intelligent All-Wheel Drive)을 통해 바퀴 동력 배분을 최대 50:50까지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다.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빗길 등을 달릴 때는 4WD 모드, 일반도로 주행시에는 2WD 모드로 주행해 연료 소모를 줄이고 노면 환경에 따른 최적의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이처럼 상품성을 강화하고도 가격은 6290만원으로 기존 모델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쳐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다.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사전 계약을 통해 뉴 QX60을 출고하면 기존 모델 가격인 62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현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금융

“66개 금융사 중 60곳이 모두 잘했다고?”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권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비판

10개 항목으로 나열...어느 회사가 미흡한지 알 수 없어 소비자연맹 "오직 금융사 입장만 반영한 쓸모없는 평가"

66개 금융회사가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성적표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기존의 민원발생평가를 대신해 도입한 새 제도다. 2014년 6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 뒤 학계와 금융권역별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11월 실시방안을 최종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7월까지 66개 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관련 회사들은 이 평가를 앞두고 긴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건수 위주로 평가했던 이전과 달리 총 10개 부문에 걸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

해 알렸다.

절대평가 방식이었다. 평가부문별로 양호 보통 미흡의 3등급 성적을 매겼다.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66개 금융회사가 지속적인 민원감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정착했고 실태평가가 대비한 인프라확충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봤다.

수치로도 확인됐다. 2015년 민원건수는 7만3094건으로 2014년 7만8631건보다 7.0%(5537건)이나 줄었다. 60개 회사(91%)가 모든 부문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금융사고'와 '민원처리 기간' 부문은 전체 회사의 90% 이상이

양호라는 성적표였다. 민원건수 부문도 전체 회사의 80%가 양호 평가였다. '상품개발 및 상품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부문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저조했고 특히 상품개발 및 영업부서에 대한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협의·조정기능 제고를 위한 시스템과 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카드사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였다. 평균 7개 부문에서 양호를 받았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분쟁조정 가운데 소를 제기하는 건수가 많고 자본적정성의 비율이 낮아 '소송건수' '영업지속 가능성' 부문의 평가가 낮았다. 금융투자회사와 저축은행은 민원건수가 적어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소홀하고 비계량 부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를 놓고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두루뭉술하고 유명무실한 평가"라고 성적을 매

긴 금융감독원을 깎아내렸다.

금융소비자연맹 "새로운 제도가 소비자에게 유익하게 개선된 점은 없고 소비자보다 금융사 입장에서 평가가 저조했고 특히 상품개발 및 영업부서에 대한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협의·조정기능 제고를 위한 시스템과 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카드사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였다. 평균 7개 부문에서 양호를 받았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분쟁조정 가운데 소를 제기하는 건수가 많고 자본적정성의 비율이 낮아 '소송건수' '영업지속 가능성' 부문의 평가가 낮았다. 금융투자회사와 저축은행은 민원건수가 적어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소홀하고 비계량 부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를 놓고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두루뭉술하고 유명무실한 평가"라고 성적을 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환전 수수료 비교 쉬워진다

금감원, 내년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서 서비스 은행별 할인율·환전 가능한 통화 종류 비교 게시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외국돈을 바꿀 필요가 많아졌다. 이때 불편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서 환전해야 더 싸게 바꿀 수 있는가. 또 각 은행이 보유한 외국돈의 종류가 많지 않아서 불편한 적도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환전 가능한 통화와 할인율을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할 때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절차 없이도 이용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밝힌 외환거래 개선방안은 해외여행과 외국과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환거래와 관련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선 소비자의 편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은행간 환전수수료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환전하면 은행별 환전수수료 할인율은 통화종류, 고객기여도 및 환전액 등에 따라 20~90% 차이가 크다. 은행별 환전통화 및 할인율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자료가 없어 내가 거래하는 은행과 다른 은행의 할인율 비교할 방법이 없었다. 사실상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의 혜택만을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 은행별 할인율 및 환전가능 통화 종류 등을 비교 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화 종류도 확대한다. 우선 해외여행객을 위해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 신청하면 공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KEB하나은행은 공항점포에서 보유한 통화가 일반 영업점과 같은 44개지만 신한은 19개, 우리은행은 13개에 그쳤다. 기업은행과 농협은 일반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는 통화 자체가 적어 인터넷으로 환전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통화 종류를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소액 결제는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환전 신청 때 본인인증절차와 로그인에 필요하지만 1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생략해 어느 은행이나 환전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여행 뒤 남은 외국돈을 전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시스템도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하나은행만 모든 영업점에서 환전해주고 있다.

김종건 기자



중국서 위안화 무역송금·원화대출 서비스 NH농협은행은 1일부터 신속한 송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농협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위안화 무역대금을 송금해주는 '신속위안화무역송금서비스'를 시작한다. 중국과 위안화로 대금결제 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사진 왼쪽) KEB하나은행의 중국 현지법인 하나은행유한공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원화 무역대출을 취급한다.



KEB하나은행의 중국 현지법인 하나은행유한공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원화 무역대출을 취급한다.